외교부	공동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2022.11.30.(수)		22-27
배포일시	2022.11.30.(수)	담당부서	외교부 인권사회과
담당자	황현이 /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장(02-2100-7264)		
	한상균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044-202-2360)		
	정유진 /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043-719-7550)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계기 신(新)서울선언문 발표

- GHSA 3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에 GHS 조정사무소 설치 추진 -

□ 신종감염병 대비 글로벌 보건안보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제7차 장관급 회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대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GHSA의 그간 활동을 평가하고 미래 역량을 집중할 영역을 제시하는 신(新)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신(新)서울선언문은 GHSA 활동을 제3기('24년~'28년)로 연장하고, 다부문 조정의 개선과 모범사례 공유, 그리고 행동계획의 기술적 작업을 지원할 GHS 조정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장관회의]**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장관회의에는 27개국, 10개 국제기구, 20개 대사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GHSA의 과거와 미래를 논의하였으며, 신(新)서울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GHSA를 통해 강화한 감염병 대응 역량과 활발한 국제 공조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맞섰다"며,

- GHSA를 통한 다부문 협력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보건안보를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것"이라 하며,

- 각국 보건 체계 강화의 필요성, 글로벌 보건 체계 개선의 시급성,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조율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경과 분야를 초월하여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제협의체로서 GHSA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 합동외부평가(JEE, Joint External Evaluation)를 개발하여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의 국가별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 것을 GHSA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고,

- 코로나19를 통해 확인한 정책 우선 순위 4가지, 1) 지속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자, 2) 제도와 법령의 정비, 위기소통 등 매우 다양한 역량의 개발, 3)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4) 국제적 자원 동원, 배분 및 활용을 위한 공조 방안을 마련하며,

- 제3기 GHSA는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한 장·단기적 프로젝트의 개발을 통해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GHSA의 과거 성과를 돌아본 제1부에서는 이종구 전(前) 보건안보대사,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스텔라 춘공(Stella Chungong) WHO 보건안보대비국장, 크리스토퍼 대니얼(Christopher Daniel) 미국 국방부 글로벌보건협력 선임자문관의 주제 발표에 따

라 장관들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 GHSA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제2부에서는 존 모내헌(John Manahan)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후앙 파블로 유리베(Juan Pablo Uribe) 세계은행 보건국장, 로빈 데이비스(Robin Davies) 호주 외교통상부 국장, 아론 제이(Aaron Jay) 미국 국방부 합동위협감소정책과장, 타레스 크라싸네라위옹(Tares Krassannairawiwong) 태국 공중보건부 국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장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다음으로, 신(新) 서울선언문 발표와 폐회식이 이어졌다.

□ **[신(新) 서울선언문]** 이번 장관회의에서 채택·발표된 신(新) 서울선언문은 GHSA의 과거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전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GHSA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보건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 탐지 및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을 구축하고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될 GHSA 제3기의 비전과 관련하여,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의 완전한 이행과 국가 수준의 기술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선도그룹이 개발하여 2023년 12월까지 회원국과 공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기술적이고 다학제적인 논의를 포함한, 역량 강화 방안

- 행정사항 효율화

- 2026년 공개될 GHSA 외부평가 일정을 포함하는 세부 계획

○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 개최국이자 선도그룹 중 하나인 한국에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를 추진하여, GHSA 3기 논의 및 효과적인 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환영함을 밝혔다.

□ **[합동 브리핑]** 이번 합동브리핑은 장관급 회의를 마무리하며, 신(新)서울선언문 내용 및 GHSA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 우리나라 대표로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참석하였다.

○ 선도그룹 주요국가인 아르헨티나 보건부 차관 산드라 티라도(Sandra Tirado) 은 코로나19가 보건 안보에 위협이기도 했지만, 국가 간 협력의 기회도 되었다고 말하면서,

- GHSA의 3기 연장을 환영하며, 아르헨티나는 선도그룹 일원이자 법제 행동계획의 공동 선도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년도 선도그룹 의장국인 태국 보건부 질병통제국 국장 타레스 크라싸네라위옹(Tares Krassanairawiwong)은 세계 각국의 JEE 점수 및 GHS 지수(Index) 향상, 다부문(multi-sectoral) 협력 증진 등 GHSA 2기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와 함께,

- 3기 행동계획은 역할, 책임, 재정에 관한 분명한 정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이전 장관회의 개최국인 우간다 보건부 장관 제인 루스 아셍(Jane Ruth Aceng)은 코로나19는 물론 에볼라, 황열병 등을 경험한 우간다가 GHSA 창립 멤버로서, 신(新)서울선언문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JEE, 재정중재기금(FIF) 등 그간 GHSA가 이룬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 GHSA 주요국가인 미국 보건부 차관 안드레아 팜(Andrea Palm)은 모범사례 공유, 행동계획의 기술적 지원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GHS 조정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2026년 GHSA 중간 평가 공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선도그룹이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를 희망했다.

□ **[개최 성과]**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건 안보 관련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에 출현 가능한 신종감염병 대응에 매우 시의적절한 회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던 제6차 장관회의와는 달리, 대면 회의로 진행되어 더욱 효과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 안보 역량을 보여준 계기로도 평가된다.

ㅇ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은 보건 안보 실무담당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해결해야 하는 의사결정 문제에 집중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되었다는 평가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진행한 예방접종 행동계획 전문가 포럼 등 9개 분야 전문가 포럼 역시 다양한 주제에 관해 회원국·기구들의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였다.

ㅇ 특히,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신(新)서울선언문은 GHSA의 그간 성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 GHSA 활동 시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2022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GHS 사무소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보건 안보 체계에서 향후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1.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개요
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전체 일정
3. 합동브리핑 개요
4. 신(新)서울선언문 전문. 끝.

붙임 1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개요

1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목표

□ **(정의)** WHO의 국제보건규약(이하, IHR)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감염병 대비·대응 핵심역량**을 각국의 안보(National Security) 개념과 접목하여 탄생한 **보건안보**(Health Security) 개념으로 탄생한 **공조 체계**

□ **(출범 목적) 생물테러, 항생제내성균 및 신종감염병 등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 약 30여 개 국가(2014년 출범 당시) 및 보건 관련 국제기구·NGO가 참여하는 **감염병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2014.2월 G7 승인하에 출범**

□ **(비전)** 감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보건위기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 **글로벌 보건안보의 책임 공유**

□ **(주요 목표)** 감염병 예방, 탐지, 대응 **역량 강화**, 글로벌 보건안보에 대한 **국가지도자의 우선순위 제고**, **부문별 협력 강화** 등

2 GHSA 현황 및 구성

□ **회원국 현황** : 71개국(한국 포함), 10개 국제기구·NGO 참여('22.9월 기준)

[국가] Afghanistan, Argentina, Australia, Azerbaijan, Bangladesh,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ote D' Ivoire, DR Congo, Denmark, El Savador, Ethiopia, Finland, France,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uinea, Guinea-Bissau, Haiti, India, Indonesia, Israel, Italy, Japan, Jordan, Kenya, LAO PDR,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i, Mexico, Mongolia, Namibia, Netherlands, Nigeria, Norway, Pakistan, Peru, Rep. of Philippines, Portugal, Rep. of Korea, Rep. of the Congo, Rwanda, Saudi Arabia, Senegal, Sierra Leone, Singapore,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anzania, Thailand, Togo, Turkiye,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Vietnam, Yemen, Zimbabwe

[기구] Africa CDC, Asia-Europe Foundation, FAO, GHSA Consortium, Mekong Basin Disease Surveillance, OIE, Private Sector Round Table, South East Asia One Health University, WHO, World Bank

□ **장관급 회의 (연 1회 개최)** ※ 2기('19년)부터 격년 주기로 변경

○ **(개최목적) GHSA 비전 및 주요 목표를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안보 분야 장관급 회의(협의를 통해 선언문 발표)

○ **(장관급 회의 개최현황)** '14년(미국), '**15년(대한민국)**, '16년(네덜란드), '17년(우간다), '18년(인도네시아), '20년(태국, 화상회의)

□ **선도그룹 회의 (연 3~4회 개최)**

○ **(개최 목적)** GHSA 운영사항 및 행동계획 진행 상황을 조정·평가

- (상임) **대한민국**, 미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케냐, 태국, GHSA Consortium, Private Sector Round Table
- (비상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세계은행, 파키스탄, 핀란드, 호주

○ **(선도그룹 회의 개최현황)** 의장국에서 개최(참석 대상: 국장급)하며, **코로나19 발생 후 대부분 화상회의로 대체('**22년 의장국 : 이탈리아)

□ **GHSA Task Force & Action Packages**

○ **(Task Force)** GHSA 목표 달성(행동계획 이행 포함)을 위한 선도그룹 국가 내 실무그룹

- Task Force* Working Group Meeting 연 4회 비대면 영상회의 실시

* 4개 TF 세부분야 : 책임과 결과, 행동계획 조정, 옹호 및 소통, 연구개발

○ **(Action Packages)** GHSA 비전 달성을 위해 예방·탐지·대응 분야로 세분화하여 9개 활동계획 운영 중

구분		세부분야	주도국
행동계획	예방	① 항생제 내성 대응(Antimicrobial Resistance)	네덜란드
		② 인수공통감염병 발생.확산 방지(Zoonotic Disease)	인도네시아, 베트남, 세네갈, 영국
		③ 생물안전 및 차단방역 체계 강화(Biosafety and Biosecurity)	우간다, Africa CDC
		④ 예방접종 대책(Immunization)	**한국, 사우디**
		⑤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Real-Time Surveillance)	조지아, 미국
	탐지	⑥ 진단.실험 시스템 강화(National Laboratory System)	미국, 태국, 남아공
		⑦ 각국의 인력 역량 강화(Workforce Development)	태국
	대응	⑧ 법제 준비(Legal Preparedness)	미국
		⑨ 지속 가능 재정(Sustainable Financing)	미국

붙임 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행사 전체 일정

□ 11.28.(월)

장소	시간	내용
그랜드볼룸 (1층)	09:00～09:50	**개회식** Opening Ceremony
	10:10～12:00	**전문가포럼 1** (주관 : KDCA)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for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me for Health Security in the Post COVID-19 Era
	14:00～16:00	**전문가포럼 2** (주관: 美 조지타운대학교) **보다 강력한 법적 대비 유지를 위한 법제 설정 : 법적 프레임워크 지침을 사용한 국가주도적 조치 지원** Legal Mapping for Sustaining Greater Legal Preparedness: Supporting Country-Driven Action Using Legal Framework Guides
	16:00～17:50	**전문가포럼 3** (주관 : 미국 재무부) **코로나19 시대 보건안보를 위한 국내 자원 동원 방안**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for Health Security in the COVID-19 Era
그랜드살롱 (1층)	16:00～17:30	**전문가포럼 4** (주관 : 영국 보건안보청) **GHSA 행동계획과 원헬스의 접목** Taking a One Health Approach across GHSA Action Packages
산수	14:00～15:30	**전문가포럼 5** (주관: World Bank Korea Office) **코로나19 대비 대응을 위한 한국-세계은행 협력체계** Korea-WBG partnership on COVID-19 Preparedness and Response
	16:00～18:00	**전문가포럼 6** (주관 : Biosafety AP) **미래 위기 대비: 생물안전, 생물안보 활동계획을 통한 국제보건규칙, 생물무기금지협약, UN안전보장이사회 1540 결의안과 같은 국제적 프레임워크 이행 지원방안** Preventing Future Threats : Supporting Global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Frameworks such as IHR, BWC, UNSCR 1540 through APP3 Action

□ 11.29.(화)

장소	시간	내용
그랜드볼룸 (1층)	14:00～16:00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 Disease X Exercise
	18:30～20:15	**만찬** Banquet
그랜드살롱 (1층)	08:00～09:30	**전문가포럼 7** (주관 : WHO) **미래 공중보건위기 대응 : 국가 이행을 위한 촉진** Navigating Future Heallth Emergency Preparedness : Accelerating Commitment for Country Implementation
산수	10:30～11:50	**전문가포럼 8** (주관 : 미국 보건부/CDC) Expert Forum 8 **국제보건규칙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 활동 평가: 연간 운영계획 및 정기 평가** Assessment to Action: Annual Operational Planning and Regular Monitoring
	12:30～14:00	**전문가포럼 9** (주관 : 미국 재무부) Expert Forum 9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과 GHSA 2024 : 다자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노력들** The Financial Intermediary Fund (FIF) for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PR) and GHSA 2024: Efforts at a Multilateral and Global Level

□ 11.30.(수)

장소	시간	내용
그랜드볼룸 (1층)	09:00～12:40	**장관 회의** GHSA Ministerial Meeting
그랜드볼룸 (1층)	13:00～14:00	**합동브리핑** Joint Press Conference
오후		**현장견학** Site Visit

붙임 3 합동브리핑 개요

□ **일정 및 장소** : **'22. 11.30.(수)** 장관회의 직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 **개요** : 장관회의 폐막 후 **5개국 대표*** 합동 브리핑

* 한국(장관회의 개최국), 태국(전(前) 선도그룹 의장국), 우간다(전(前) 장관회의 개최국), 미국(주요 추진국), 아르헨티나(선도그룹 주요국가) 5개국

□ **주요내용** : 서울회의 **개최 의의** 및 **서울선언문** 브리핑(한국)

○ GHSA 필요성 및 그간의 성과, 향후 운영계획(GHSA 3기)과 비전 등

□ **참석대상** : 보건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3개 부처 출입기자**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 예정(내외신 기자단 포함)

□ **진행순서(안)** * 동시통역을 고려하여 시간 배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00 ~ 13:05	(5')	• 5개 국가 장관 입장 • 사회자 : 기자회견 시작 및 순서 안내	• 사회자 : 정유진 과장 (GHSA기획총괄팀장)
13:05 ~ 13:15	(10')	• **GHSA 서울회의 전체 브리핑** - 서울회의 행사 취지 및 개최 의의 - 서울 선언문 브리핑	• 韓 보건복지부 2차관 질병관리청 청장 (회의 개최국)
13:15 ~ 13:35	(20')	• **GHSA의 중요성과 역할**(5분)	• 아르헨티나 보건부 차관 (선도그룹 주요국가)
		• **GHSA가 그간의 성과 및 노력**(5분) - GHSA 1~2기 추진 중심으로	• 태국 보건부 국장 (韓 의장국)
		• **COVID-19 시기 중 GHSA의 성취**(5분)	• 우간다 보건부 장관 (前 장관회의 개최국)
		• **GHSA 향후 운영 계획과 비전**(5분)	• 미국 보건부 차관 (GHSA 주요국)
13:35 ~ 13:58	(23')	• **질의 응답**	• 5개국 대표
13:58 ~ 14:00	(2')	• **마무리**	• 5개국 대표

□ 대표단 명단

번호	사 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1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 현(現) 질병관리청장 · 전(前)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현(現) 보건복지부 2차관 · 전(前)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3		산드라 티라도 Sandra Tirado	아르헨티나 보건부 차관	· 현(現) 아르헨티나 보건부 차관
4		타레스 크라싸네라위옹 (Tares Krassanairawiwong)	태국 보건부 질병통제국 국장	· 현(現) 태국 보건부 국장
5		제인 루스 아셍 Jane Ruth Aceng	우간다 보건부 장관	· 현(現) 우간다 보건부 장관
6		안드레아 팜 Andrea Palm	미국 보건부 차관	· 현(現) 미국 보건부 부장관

붙임 4 신(新)서울선언문 전문

2022년 11월 3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7차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장관회의에 참석한 우리 보건부 장관 및 다부문 대표단은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수준에서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GHSA 회원들이 다시 글로벌 보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코로나19 변종 및 기타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부야 및 다자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장하고 촉구합니다.

GHSA는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전한 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전정부적, 전사회적 접근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GHSA 회원들은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보건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 탐지 및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을 구축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GHSA 2기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박수를 보내며 GHSA 2024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GHSA를 세 번째로 연장하여 국제보건규칙(IHR 2005)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 촉진하고 국가의 관련 기술역량을 증진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연장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조에서 GHSA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의 보건 안보 위기에 대비, 예방, 감지 및 대응하기 위한 다부문 대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3기 GHSA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개발하고, 경험, 목표 및 국가 행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이 기여하도록 장려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시 한번 다부문에 걸친 국가 관련 역량 강화, IHR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입증했으며, 원헬스를 위한 사자 협력을 인식하면서 국가가 국가, 지역 및 글로벌 보건 안보와 국가 보건 안보 행동계획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및 합동외부평가(JEE)와 기타 IHR 평가 도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모든 수준에서 보건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LMIC)의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인 팬데믹 기금(Pandemic Fund)을 설립 하려는 G20의 글로벌 노력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기초단체,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보건안보를 완전히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가 다음 팬데믹을 예방,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GHSA의 행동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추가로, GHSA 활동이 IHR (2005)의 개정 절차 및 일종의 팬데믹 조약에 관한 심의와 같이 미래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진행 중인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고 연계해야 함을 인식합니다. 이 과정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및 기타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드러난 격차를 해결하고 미래의 보건 위협에 대비, 예방, 감지 및 대응하기 위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GHSA가 국가 차원의 발전을 주도하고 국제 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기술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함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GHSA 3기에 선도그룹이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개발하고 2023년 12월까지 이를 회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합니다.

- GHS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적, 다학제적 논의를 포함하여 기초 단체, 국가, 지역 및 글로벌 보건 보안 역량을 강화 권장

- 영향력을 증진하고 GHSA를 충분하게 글로벌 보건 구조에 등장하는 다른 요소들에 연계하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증대하여, GHSA 이니셔티브, 거버넌스, 절차, 소통 및 운영 방법의 개혁에 관한 권장 사항

- 관심있는 회원과의 협의를 통해 차기 GHSA의 목표 및 범위, 2028년 수정된 목표, 회원 약속에 대한 기대 수준, 2026년 공개될 GHSA의 외부 평가 일정을 설명하는 세부계획

우리는 또한 이번 GHSA 장관회의 개최국이자 GHSA 선도그룹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한국에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설립하여 기술 및 다부문 조정 개선, 회원 간 모범 사례/교훈 공유 촉진, 그리고 행동계획의 기술적인 업무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GHSA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지역,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환영합니다. 이 사무소는 3기 GHSA에서 수행되는 노력을 포함하여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다부문 역량을 개선하는 노력을 총체적으로 도울 것입니다.